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할인 범위

- 그동안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정가의 9%이내 간접할인)인 할인율은 정가의 4%를 축소한 15%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어요.(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

< TIP > '도서정가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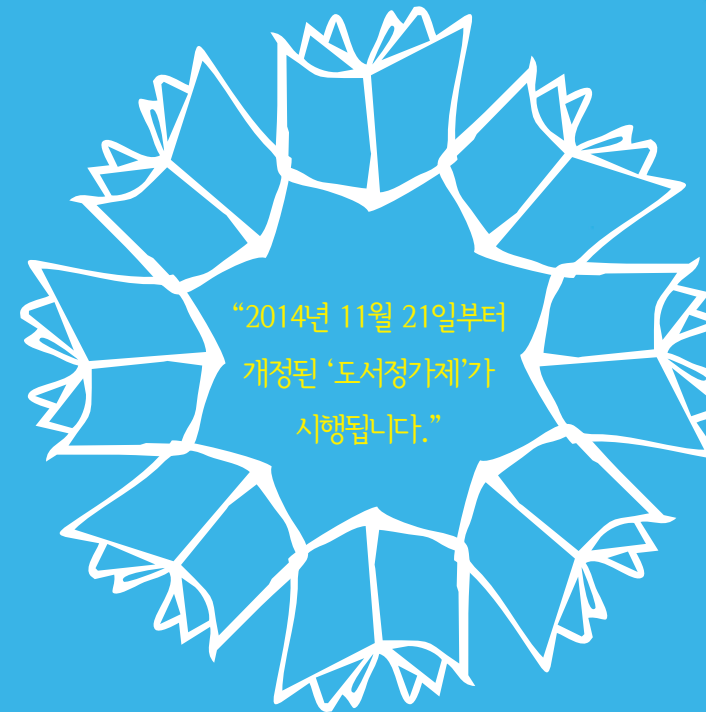
- 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 서점 등 유통사는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입니다. 단,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이내의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할인 8% + 간접할인 7% = 10,000원 책 구입 시 800원 할인받고 700원 적립 가능



도서정가제, 출판문화 융성의 디딤돌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일은
가치 있고 다양한 책의
선택권을 독자에게 제공하며
지식 문화를 풍부하게 살리는
힘이 됩니다.



문의 및 안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전화 : 02-3327-112

홈페이지 : www.cleanbook.or.kr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

대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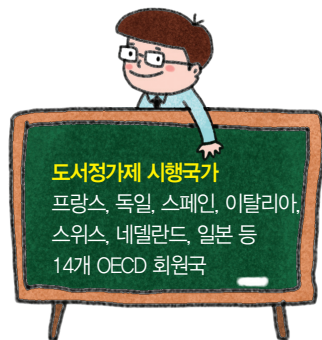
-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에요. 그동안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실용도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 발간한 지 18개월이 안 된 간행물(신간)에 적용됐던 도서정가제를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신간+구간)까지 확대해요.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가를 낮추는 '재정가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로 소비자는 싼 값에 책을 살 수 있고, 출판사는 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도서정가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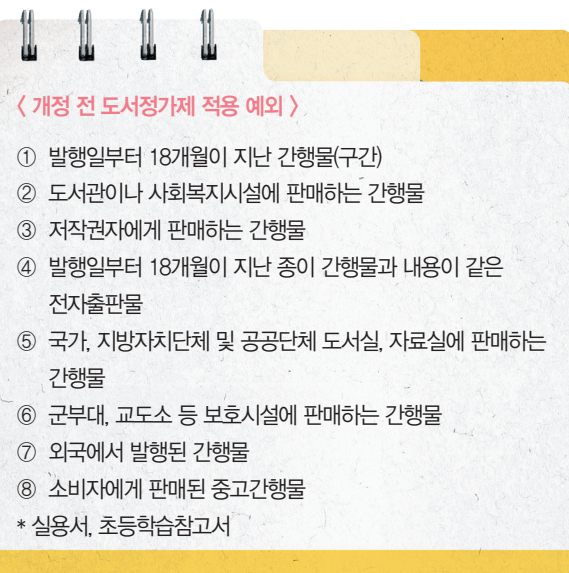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범위	실용서, 초·중·고등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도서, 발간한지 18개월이 안된 간행물(신간)	모든 도서, 발간 기간과 무관한 모든 간행물(신간+구간), 발간한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
할인범위	정가의 10% 가격 할인 + 판매가의 10% 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 조합 (단, 가격할인은 최대 10%로 제한)
적용 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정가제는 왜 개정하나요 ?

- 개정 전 도서정가제가 지닌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른 나라(정가의 2~15%) 보다 **높은 도서 할인율** (정가의 19%)로 인해 대형 출판사와 유통사를 제외한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의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또한, 할인을 감안해 도서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가격 거품이 형성** 되었어요.



- 둘째 **개정 전 '도서정가제 예외'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졌어요. 비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용도서로 등록하여 저가로 할인 판매하는 것이죠. 이는 경쟁적인 할인판매, 저자의 창작의욕 저하, 출판사 경영 악화, 도서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출판문화 생태계가 무너짐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 따라서 저자 - 출판·유통사 - 독자가 상생하고 출판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책값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정가의10%의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 간접 할인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정가의1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책(구간)은 정가를 낮게 다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간은 신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창작물인 도서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소출판사도 다양한 도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거품이 사라져 도서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에요. 실제로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 초등 학습참고서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된 중고등 학습참고서보다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출판사는 책값을 높게 정하고 유통사는 많이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눈속임을 한 셈이죠.
- 대형 출판·유통사(온라인 서점 포함) 뿐 아니라 **중·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서로 공존하고 균형 발전**하여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